

▶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본**



난정희서도

# 옛 사람들의 유명 필적이 어떻게 생겼을까?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옛 사람들의 유명한 필적을 익히거나 감상할 목적으로 만든 책(법서·법첩)을 소개하는 특별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본'을 갖는다.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 선인들이 글씨를 연습하는데 즐겨 사용한 중국 명필의 글씨본뿐 아니라 전주에서 간행된 법첩과 전북의 서예가에 의해 제작된 법첩필사본도 함께 보여준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고대의 글씨, 동진의 전법에 이르다'는 고대 중국의 금석문 탁본에서 서성이란 칭호를 얻은 왕희지에 이르러, 중국 서예의 전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선비, 난정서, 중국 고대의 다양한 글씨를 따라 쓴 병풍 등을 감상할 수 있다.

2부 '당과 송, 변혁의 기운이 울뚫다'에선

21일 개최 서예비엔날레 연계 전주서 간행된 법첩 등도 선보이고대 글씨 등 4부로 구성 전시와 연계한 특별강연도

자신의 서체를 구축한 당, 송 시대 대표 명필의 글씨본을 소개한다. 당나라 구양순, 안진경, 회소를 비롯하여 송나라의 소동파, 미불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구성공예천명, 자서첩, 적벽부, 백운거미첩 등을 만날 수 있다.

'월과 명, 복고와 재창조가 이루어지다' 주제의 3부에선 원·명 시대의 대표적 명필인 조맹부, 설암, 동기창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전통적인 서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순화각첩의 일서

진전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조명한다. 완화유수첩, 춘중서첩, 동기창의 산수도첩이 관람객을 맞는다.

4부 '집첩, 명필들의 글씨를 아우르다'에선 중국 명필 글씨를 모아서 제작한 글씨본인 '집첩'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제작된 집첩인 순화각첩

명대 중각본과 함께 회홍당첩, 삼희당법첩 등 각종 집첩이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특별전에는 중국의 글씨본뿐만 아니라 이를 모범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선인들의 작품도 다수 전시 된다"면서 "최초로 명필의 글씨를 모아 간행한 송나라 '순화각첩', 왕희지의 '난정서' 고사를 그린 명나라 '난정희서도', 1000년 이상 된 북송시기의 '집자성교서' 탁본, 오세창의 병풍은 특히 주목되는 주요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전과 연계한 특별강연이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예와 법서(이완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10월 28일), 전북의 서예전통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김병기 전북대 교수·11월 2일), 중국의 서예·비와 첩의 세계(정현숙 원광대 연구위원·11월 9일) 등의 강연이 마련된다.

전시는 오는 12월 3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 연수생 위한 교육활동 도중 틈틈이 깔고 닦은 기량 발휘

전북도립국악원 교수음악회  
'태평國 여민樂' 오늘 무대에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19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태평國 여민樂'이라는 주제로 제16회 교수음악회를 갖는다.

이번 교수음악회엔 교육학예실 교육팀 25명의 주·야간 교수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연수활동을 하며 틈틈이 깔고 닦은 기량을 펼쳐 보인다.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시대에 선비들에 의해 주로 연주되던 기악합주곡 '천년만세'와 화려함 보다는 정갈하면서 절제된 미가 돋보이는 '현영속류 태평무'를 선보인다.

또한 슬슬하고 외로움을 표현하는 주제선율을 바탕으로 연주되는 해금과 피아노 2중주곡 '적멸'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가 슬픈 처지를 아뢰는 대목부터 맹인들이 눈을 떠 기쁨을 맞보는 '심봉사 눈뜨는 대목', 노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식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흰 수건에 마음을 담아 그려 보이는 '어머니 한', 대표적인 풍물굿 가락을 모아 얹은 반의 형태로 연주하는 '얹은반 사물놀이', 뱃사람들의 고달픔과 적막한 바다풍경,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과 기쁨을 그린 '신밧노래'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관람객과 함께 한다.

신동원 원장은 "연수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교수들이 틈틈이 열성을 모아 준비한 만큼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미결 사형수에서 독립운동가 대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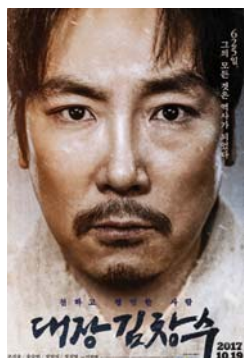
전주영상위원회, 영화 '대장 김창수' 무료 시사회 개최... 오늘 전국 상영관서 개봉

(사)전주영상위원회는 '대장 김창수'의 무료 시사회를 18일 오후 7시 30분 전주시네마타운 4개 상영관에서 가졌다.

'대장 김창수'는 전주영상위 전주·전북 인센티브 지원작으로, 영화의 60%가 넘는 분량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부안 새만금, 남원 서도역 등지에서 지난 겨울동안 촬영했다. 특히 전주영화종합촬영소내에 만들어진 감옥세트장은 영화 속 주요 배경으로 활용됐다.

김창수는 백범 김구 선생의 개명 전 이름. 작품은 명성황후 시해범을 살해한 죄로 인천 감옥소에 수감된 청년 김창수가 미결 사형수에서 독립운동가 대장 김창수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실화다. 조진웅과 송승헌이 주연을 맡았다.

이날 시사회에는 전주시민과 촬영협조기관 관계자 680명이 참석했다. 영화 시작 전 무대인사엔 '대장 김창수'를 제작한 장원석 대표와 이원태 감독, 배우 조진웅 등



'대장 김창수'는 19일 목요일 전국 상영관에서 개봉한다. /정해은 기자

출연자들, 그리고 촬영에 도움을 준 전주시민 및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사회를 주관한 전주시민은 "지역에서 꾸준히 촬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면서 "영화배우들을 직접 보게 되어 더욱 즐거웠으며 전주시민을 위한 시사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판소리' 조통달 명창, 동리대상 선정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인 고창의 '제27회 동리대상' 수상자로 조통달 명창(사진)이 선정됐다.

(사)동리문화사업회는 '제27회 동리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조통달(본명 조동규)명창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945년생인 조통달 명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준 보유자이며, 평생을 국악과



판소리에 대한 남다른 예술적 열정과 애정으로 국악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전남도립 남도국악단에서 단장으로 7년간 국내·외 순회 공연을 통해 한인교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악을 널리 알렸으며, 국악신동 유태평양이 최연소 6세 흥보가 완창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전국의 어린이들과 세계에 국악을 널리 알리면서 각 분야의 신동이 발굴되는 계기가 됐으며 판소리의 대중화에도 큰 공적을 남겼다.

'제27회 동리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6일 오후2시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열리며 수상자와 제자들이 꾸미는 화려한 축하공연도 함께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ekr.or.kr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시업을 넘어온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녹색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영농 및 생활환경개선을 촉진 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경제 Hub로 육성, 관광인프라와 소독기반을 구축합니다.

농어촌이 향하는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농수 및 유지관리사업, 농지행사법,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자재 및 해외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